

서울시 여성가족정책 리뷰

2022.12.(제11호)

서울시 여성 자영업자의 일·생활균형 실태와 정책 시사점*

강은애/서울시여성가족재단 정책개발실 아동보육정책팀

[재단의 관련 분야 연구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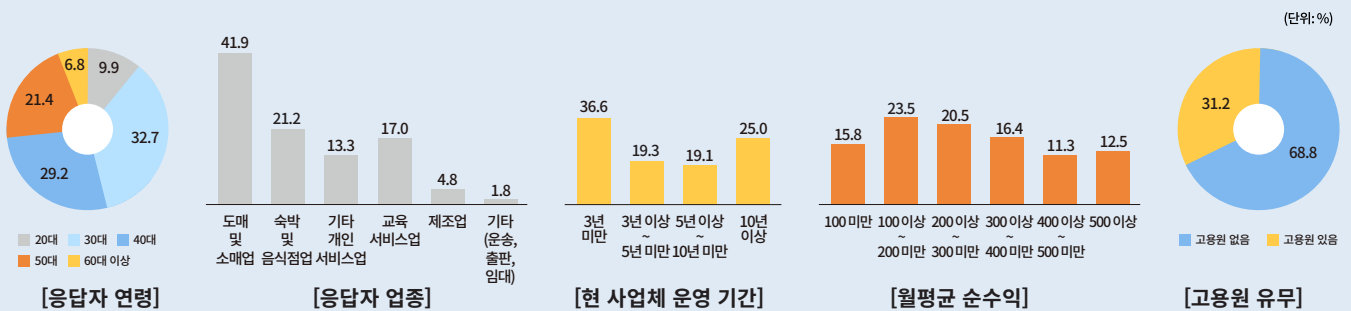
- 서울시 중소기업 일·생활균형 실태 및 지원 방안 연구(2018)
- 비정규직 여성의 일·가족 양립 지원 방안 마련(2018)
- 서울형 성평등 일·생활균형 기업 지원 모델 개발(2019)
- 서울시 청년세대의 일·생활균형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2020)
- (수탁)2020년 성인지 통계: 서울 여성과 남성의 일·생활균형 실태(2020)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고용단절 예방, 남성의 육아 참여 활성화 정책으로부터 출발한 일·생활균형 지원 제도는 노동시간 단축, 개인 생활 존중의 사회문화 조성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책이 정부와 지자체, 기업을 중심으로 발전해 오면서 자영업자 등 비임금근로자는 일·생활균형 지원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었다. 그 규모는 서울시 전체 취업자의 17.7%(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22년 10월」)에 이르고 있으며, 이 중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자영업자 중에서도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각종 사회보장제도뿐만 아니라 일·생활균형 지원 제도에서도 제외되어 왔다. 이에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서는 서울시 자영업자의 일·생활균형 실태를 조사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일하는 시민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방안을 모색하였다. 특히, 여성 자영업자는 일·생활 불균형으로 인해 남성 자영업자보다 생존율이 낮다고 알려져 있으나 이들의 일·생활균형에 관한 연구와 정책적 관심은 부족했다. 이러한 현실에 주목하여 이번 호 여성가족정책 리뷰에서는 여성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정책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 서울시 자영업자의 일·생활균형 실태조사 개요

- 조사 대상 : 서울시에 영업장을 둔 여성 자영업자 336명(고용원이 없거나 고용원이 1인 이하인 자영업자)
- 조사 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조사
- 조사 기간 : 2022년 8월 16일~9월 16일
- 응답자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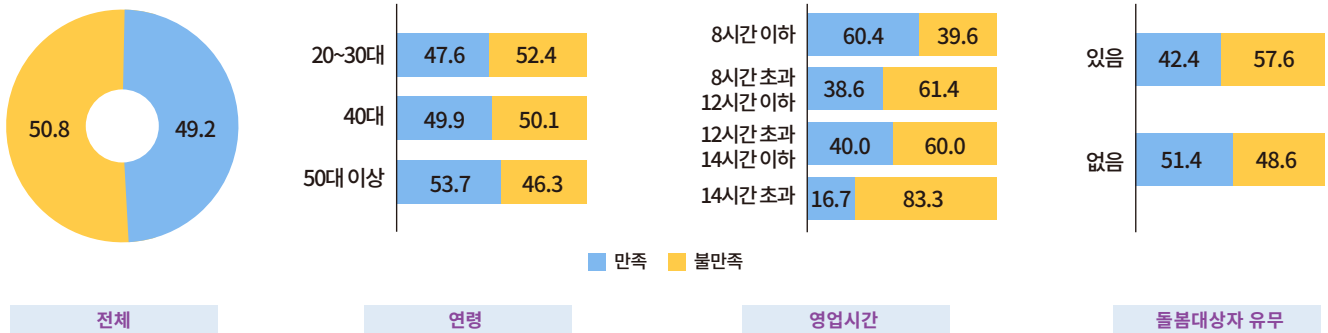
* 이 자료는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수행한 「서울시 자영업자의 일·생활균형 실태 및 정책지원 방안 연구」(강은애·남이혜, 2022)의 일부임.

자영업자, 일·생활균형에 얼마나 만족할까?

• 전체 응답자의 49.2%가 '만족한다'라고 응답하여 절반 이상(50.8%)이 불만족

- 20~30대의 47.6%가 일·생활균형에 만족, 다른 연령대보다 높은 불만족 응답률을 보임(52.4%).
- 영업시간에 따라 만족 격차가 커져, 하루 8시간 이하로 영업하는 경우 60.4%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으나, 14시간 초과하여 영업하는 경우 83.3%가 불만족한다고 응답함.
- 돌봄대상자¹⁾가 있는 응답자의 57.6%는 일·생활균형에 불만족한다고 응답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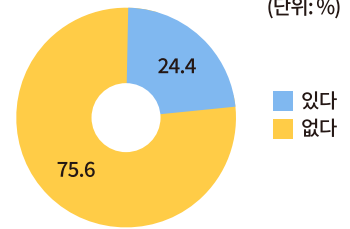


[일·생활균형 만족]

• 여성 자영업자의 일·생활불균형은 폐업의 원인이 되기로 하므로 실태 파악, 지원 정책 마련이 필요함²⁾.

- 출산 후 자녀돌봄은 여성 자영업자의 일·생활균형을 어렵게 하여, 유자녀 응답자의 24.4%가 임신, 출산, 자녀돌봄으로 인한 폐업 경험이 있었음.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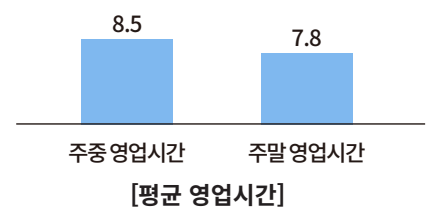
[임신, 출산, 자녀돌봄으로 인한 폐업 경험]

긴 영업시간

• 주중 하루 평균 8.5시간 영업

- 주 5일 기준, 자영업자의 일주일 평균 노동시간은 최소 42.5시간으로 2022년 서울지역 취업자의 일주일 평균 노동시간(34.3시간)보다³⁾ 약 8.2시간 길게 나타남.
- 주말에도 영업하는 경우(응답자의 74.7%) 하루 평균 영업시간은 7.8시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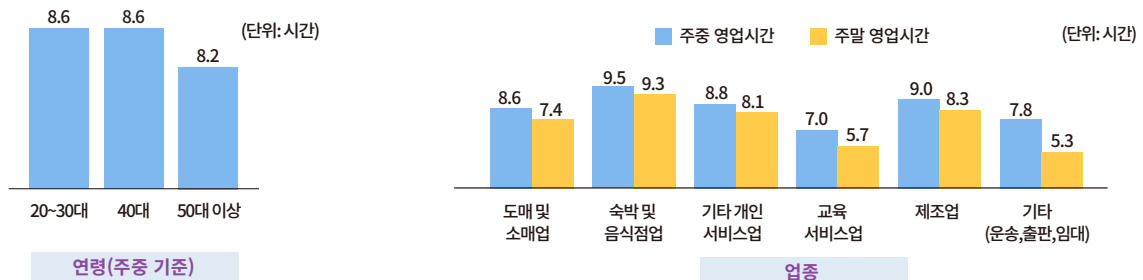
(단위: 시간)



[평균 영업시간]

• 40대 이하 응답자의 영업시간은 8.6시간으로 50대 이상보다 긴 것으로 나타남.

• 업종별로는 숙박 및 음식점업의 영업시간이 주중 9.5시간, 주말 9.3시간으로 가장 길었음.



[평균 영업시간]

1) 미성년 자녀, 성인 장애인, 돌봄이 필요한 노인, 돌봄이 필요한 환자 모두를 합하여 '돌봄대상자'로 분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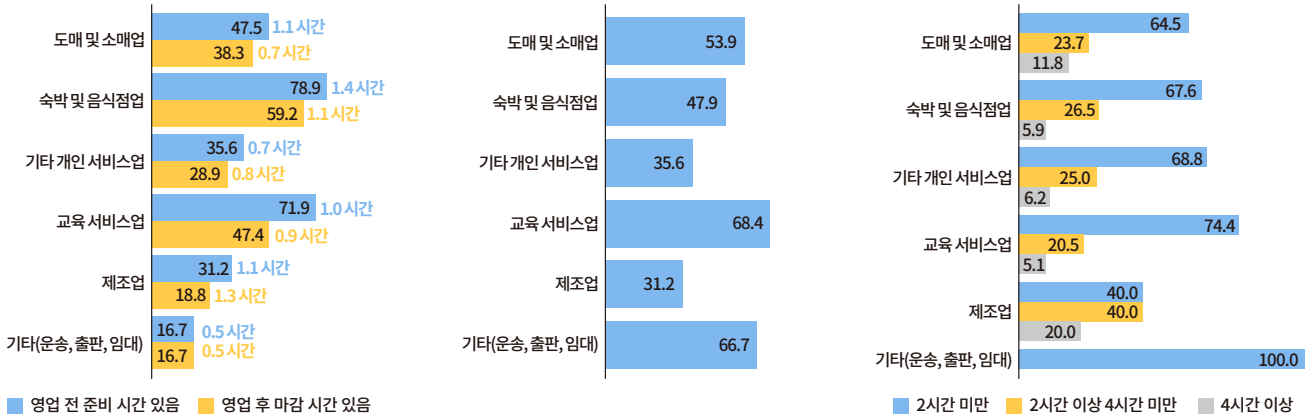
2) 문유경·전기택·배호중·김근태, 2017, 「여성가족 빅데이터의 활용을 통한 정책 개선과 발굴(1)」, 한국여성정책연구원.

3) 통계청, 2022, 「경제활동인구조사」

업종에 따라, 영업시간 외 업무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나

- 영업 준비시간이 있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 업종은 숙박 및 음식점업이며(78.9%), 소요시간도 1.4시간으로 가장 길게 나타남.
- 영업 후 마감시간도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가장 많았음(59.2%). 다만, 마감 소요 시간은 제조업이 1.3시간으로 가장 길었음.
- 교육 서비스업의 경우, 집에서 일한다는 응답이 68.4%로 가장 많았음. 집에서의 업무시간은 2시간 이내라는 응답이 대다수임.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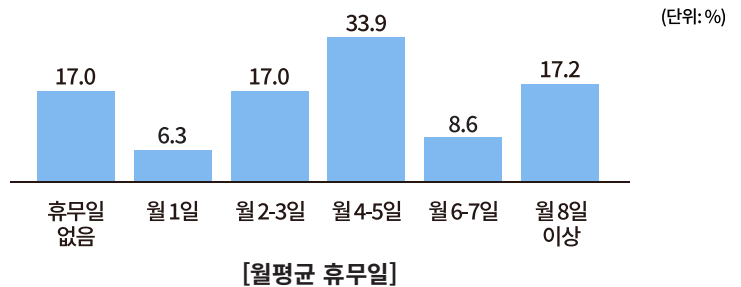
[영업 준비와 마감시간이 '있다'는 응답과 평균 소요시간]

[업종별 집에서 일하는 비율]

[업종별 집에서의 업무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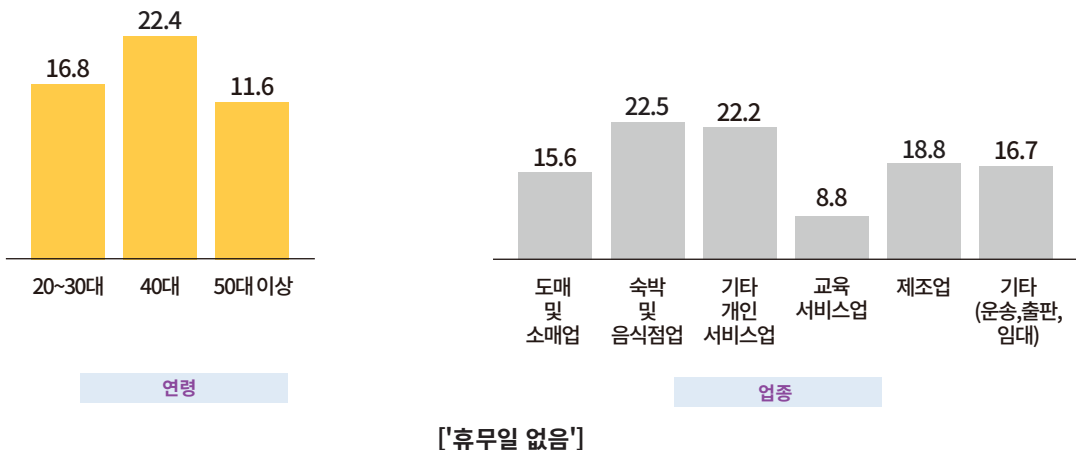
자영업자 4명 중 3명은 일주일에 1일 이하로 쉬어

- 월평균 4~5일 휴무한다는 응답은 33.9%로 가장 많고, 휴무일이 없다는 응답은 17.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 전체 응답자의 74.2%가 월 4~5일 이하로 휴무하여, 4명 중 3명은 일주일에 1일 이하로 쉬는 것을 알 수 있음.



- 연령별로는 40대가 휴무일이 없다는 응답이 22.4%로 가장 많았음.
- 업종별로는 숙박 및 음식점업의 22.5%, 기타 개인 서비스업의 22.2%가 휴무일 없이 일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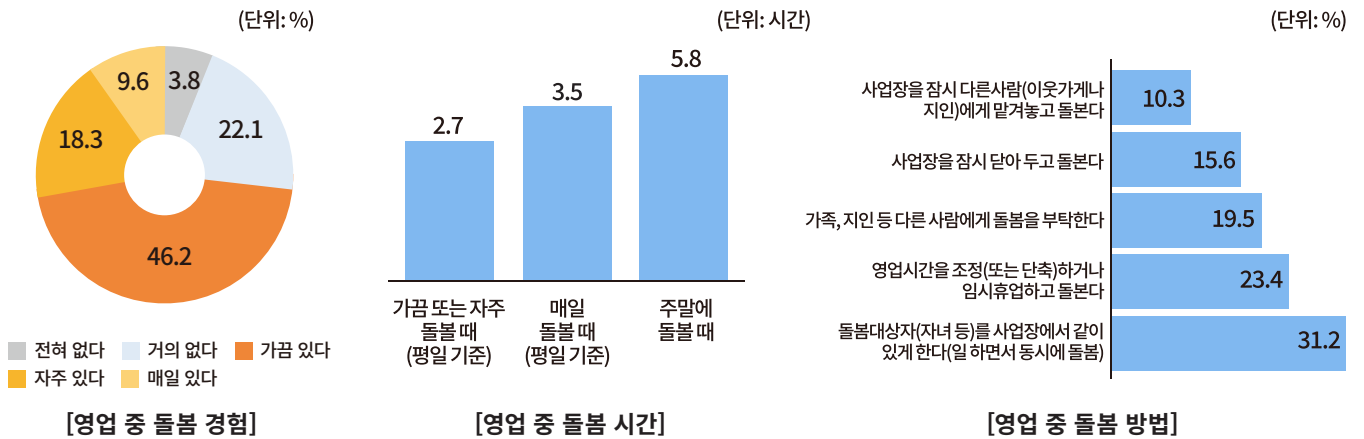
(단위:%)



['휴무일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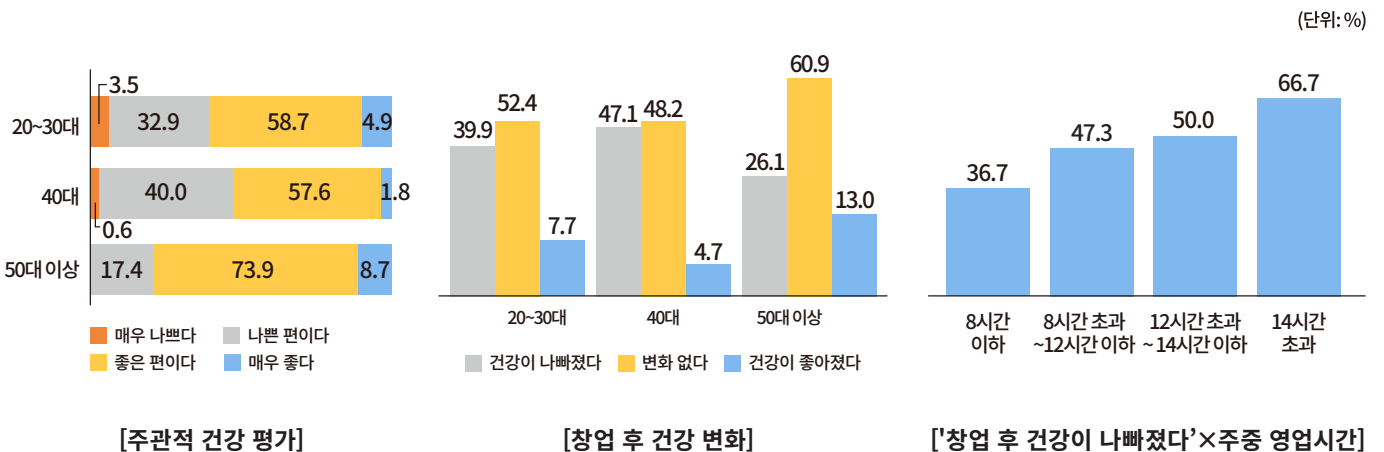
영업 중의 돌봄 수행

- 돌봄대상자가 있는 경우, 영업 중 돌본다는 응답은 74.1%
 - 가끔 46.2%, 자주 18.3%, 매일 9.6%
 - 가끔 또는 자주 돌보는 경우 하루 평균 2.7시간, 매일 돌보는 경우 하루 평균 3.5시간 돌봄(평일 기준).
 - 주말의 경우에는 하루 평균 5.8시간 돌보는 것으로 나타남.
- 영업 중 돌봄 방법으로는 사업장에 같이 있게 하면서 돌본다는 응답이 31.2%로 가장 많고, 돌봄을 위해 영업시간을 조정(단축)하거나 임시휴업 한다는 응답이 23.4%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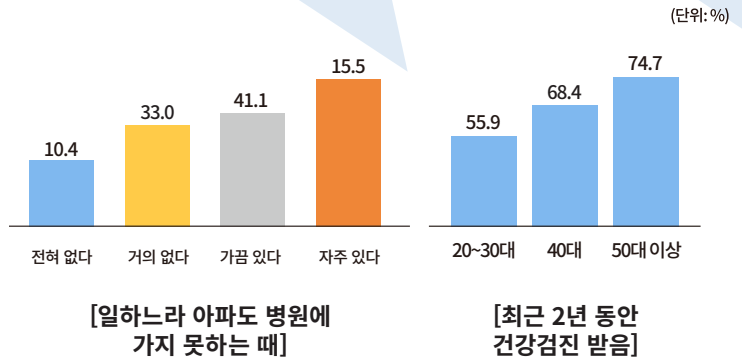
자기돌봄의 어려움

- 주관적 건강 평가 결과, 40대 이하 연령층의 건강이 우려되는 상황
 - 20~30대의 32.9%는 건강이 '나쁜 편', 3.5%는 '매우 나쁨'
 - 40대의 경우 40.0%는 건강이 '나쁜 편', 0.6%는 '매우 나쁨'
- 창업 후 건강이 악화되었다는 인식은 40대(47.1%)가 가장 높아, 다른 연령대에 비해 건강관리 필요성을 크게 느낄 것으로 예측됨.
- 영업시간이 길수록 창업 후 건강이 나빠졌다고 응답
 - 영업시간이 14시간 초과인 응답자의 66.7%가 창업 후 건강이 나빠졌다고 인식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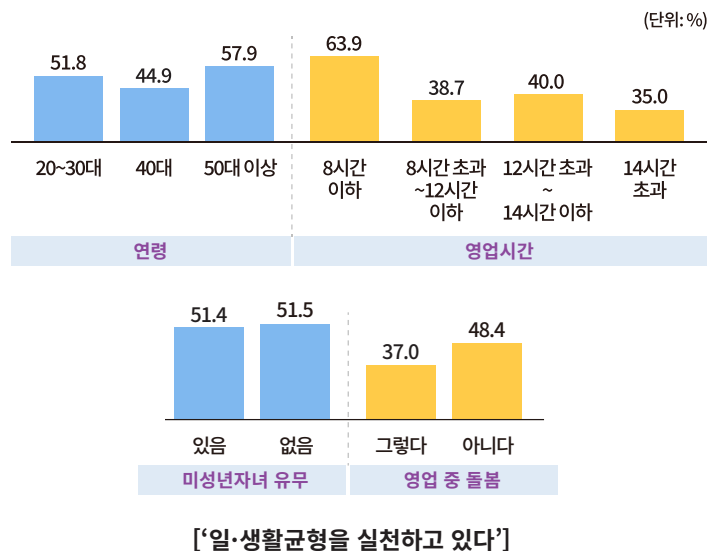
서울시 여성 자영업자의 일·생활균형 실태와 정책 시사점*

- 전체 응답자의 15.5%는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때가 '자주' 있다고 응답함.
- 최근 2년간 건강검진 수검률은 20~30대에서 가장 낮고, 50대 이상에서 가장 높음.
 - 20~30대와 40대 자영업자의 건강검진 수검률은 서울시민의 평균 수검률⁴⁾보다 현저히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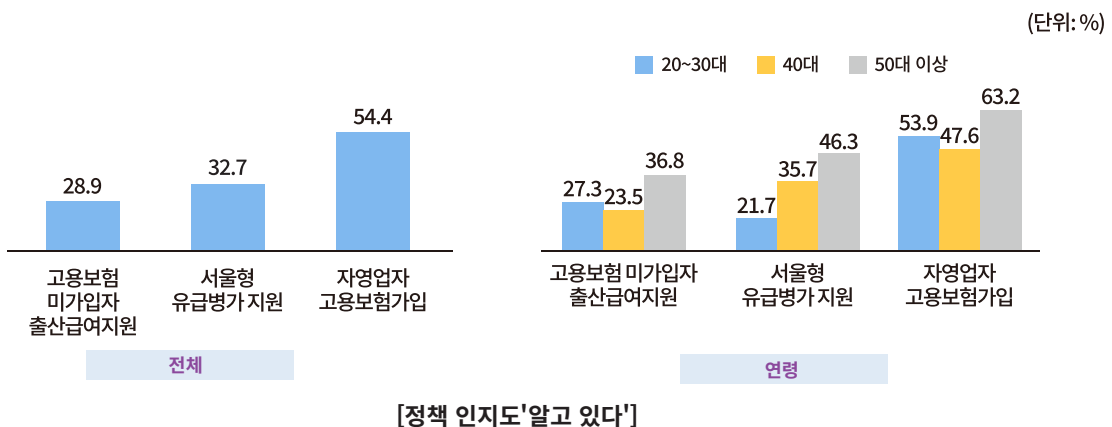
일·생활균형 실천의 어려움

- '일·생활균형을 실천하고 있다'라는 응답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50대 이상임(57.9%).
- 영업시간 8시간 이하 응답자의 63.9%가 '일·생활균형을 실천하고 있다'라고 응답한 반면, 영업시간 14시간 초과 응답자는 35.0%만이 '일·생활균형을 실천하고 있다'라고 응답함.
- 미성년 자녀 유무보다는 영업 중 돌봄 여부가 일·생활 균형에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됨.



자영업자 일·생활균형 지원 정책의 낮은 인지도

- 일·생활균형 관련 자영업자 지원 정책⁵⁾의 인지도가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남.
 - 인지도가 가장 높은 정책은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임(전체의 54.4% '알고 있다').
- 연령별로, 50대 이상 응답자 층에서 전반적으로 정책 인지도가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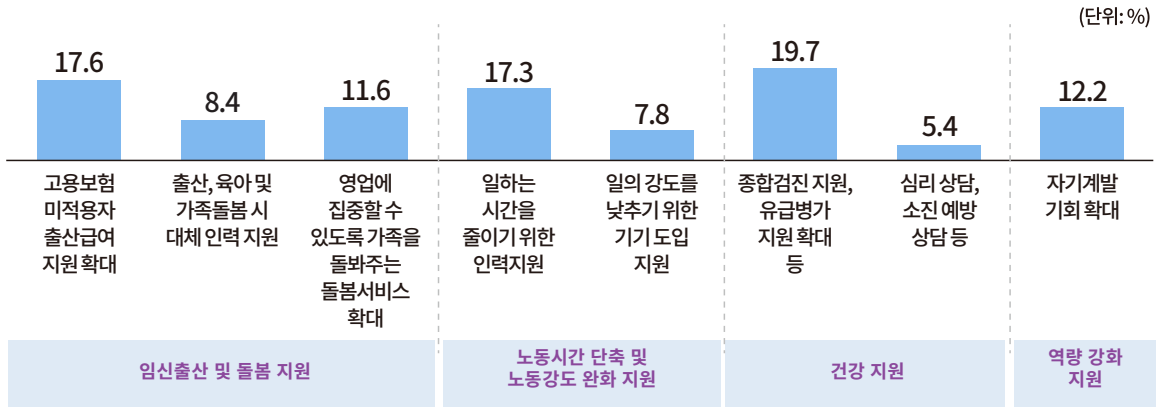
[정책 인지도 '알고 있다']

4) 2021년 서울시의 연령별 건강검진 수검률은 20대 66.0%, 30대 75.1%, 40대 78.5%, 50대 이상은 77.6%임(국민건강보험공단, 2021).

5) 자영업자의 일·생활균형 지원을 명시한 정책은 아니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지원,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경우 각각 출산 급여, 병가, 폐업 지원 및 자기계발비 지원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일·생활균형 관련 정책으로 보고 인지도를 조사하였음.

자영업자의 일·생활균형을 위해 필요한 정책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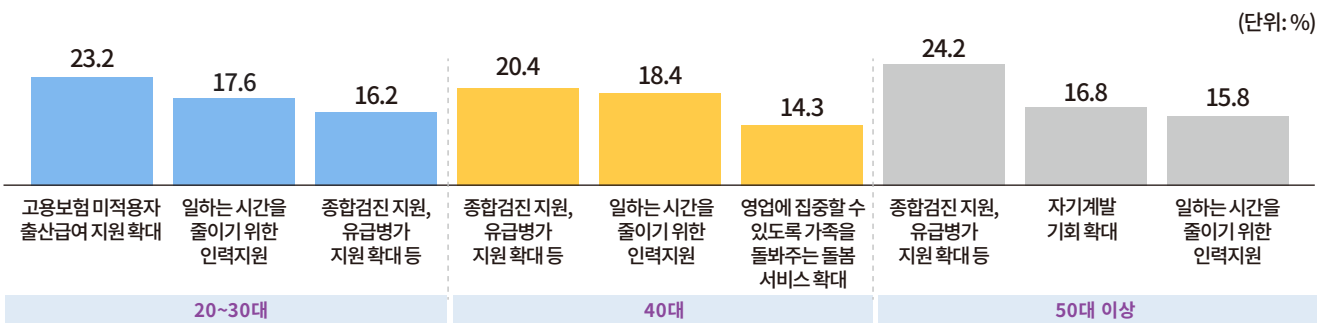
- 전체 응답자의 19.7%, 종합건강검진지원 및 유급병가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식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지원 확대(17.6%), 일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한 인력지원(17.3%) 순으로 정책 수요 높아



[자영업자의 일·생활균형을 위해 필요한 정책]

• 모든 연령대에서 건강과 인력 지원 수요가 높은 가운데, 생애주기를 반영한 정책 수립 필요

- 20~30대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확대(23.2%), 일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한 인력지원(17.6%), 종합건강검진지원 및 유급병가지원 확대(16.2%) 순으로 필요성이 크다고 응답함.
- 40대는 종합건강검진지원 및 유급병가지원 확대(20.4%), 일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한 인력지원(18.4%), 영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가족을 돌봐주는 돌봄 서비스 확대(14.3%) 순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임.
- 50대 이상은 종합건강검진지원 및 유급병가지원 확대(24.2%), 자기계발기회 확대(16.8%), 일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한 인력지원(15.8%) 순으로 필요성이 크다고 응답함.



[자영업자의 일·생활균형을 위해 필요한 정책_연령별 1~3위 응답]

자영업자의 일·생활균형 지원 정책 마련을 위한 시사점

□ 자영업자의 노동시간 단축과 쉼 지원을 위한 정책 필요

- 자영업자의 일하는 시간은 임금근로자보다 매우 길어, 일하는 시간 단축을 위한 인력지원 정책 수요가 높음.
- 예비창업자 연계 프로그램, 기기 도입 지원 등을 통해 일하는 시간 단축 지원 정책 모색이 필요함.
 -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취·창업 프로그램 사업에서 단시간 일자리 연계 등 고려
 - *키오스크(무인 단말기), AI 기반 예약서비스 도입 비용 지원 검토

□ 임신·출산으로 인한 폐업 예방, 영업 중 돌봄으로 인한 이중노동 해소 지원 정책 발굴 필요

- 임신·출산·자녀돌봄으로 인한 폐업 경험은 24.4%임. 임금노동자의 고용단절 예방정책에 준하는 지원 정책 발굴이 필요함.
 - *임신·출산으로 인한 휴업 시, 휴업보상 및 인력지원 등 다각도의 정책 발굴
 - *가능한 업종을 대상으로 예비창업자와 영업장 공유 사업 검토
- 돌봄대상자가 있는 경우, 74.1%가 영업 중 돌봄을 수행함. 이로 인해 이중노동의 강도가 높고, 이는 여성 자영업자의 일·생활균형 실현을 어렵게 하는 주요 원인임.
 - *영업장 근처에서 이용할 수 있는 돌봄 시설 확충(서울시 엄마아빠행복프로젝트의 '서울형 키즈카페', 시간제 돌봄 시설 확대)
 - *긴급돌봄, 야간돌봄 연계, 야간보육 기관 이용 시, 자영업자 우선 연계 지원 등 정책 개선

□ 아플 때도 병원 방문이 어려운 현실에 주목하여 '아프면 쉼 권리' 보장 시급

- 휴업의 부담으로 질병이 심각해진 이후에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음. 건강검진 수검률 또한 평균보다 낮음.
 - 건강 지원 정책 수요가 높다는 점에 주목하여, 종합건강검진 지원,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제도 개선 검토가 요구됨.
 - *지역 병·의원과 협력하여 같은 지역의 자영업자에게 종합건강검진 할인 서비스 지원
 -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제도 인지도 제고, 지원 대상과 범위⁶⁾ 확대 검토
- 다양한 경로로 홍보, 건강검진 지원 시 기준중위소득 상향, 외래진료 시에도 일부 지원 등 검토

*참고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2021, 「건강보험통계」, 국민건강보험.
- 문유경·전기택·배호중·김근태, 2017, 「여성가족 빅데이터의 활용을 통한 정책 개선과 발굴(I)」,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통계청, 2015,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청.
- _____, 2018,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청.
- _____, 2021,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청.
- _____, 2022,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청.

6)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제도의 지원 대상은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원 전체 재산이 3억 5천만 원 미만이며, 지원 범위는 연간 최대 15일(입원 13일, 건강검진 1일,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 반응 1일/1일 86,120원) 임(2022년 기준).